(720)

주체105
(2016)
6-7
(특간호)

차　　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성대히 진행

표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　　사진 리광성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개 회 사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올 배심과 신심드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전인민적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동지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그리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럽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이 기간 우리 당은 자기 대렬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먼길을 걸어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김일동지, 최현동지, 오백룡동지, 오진우동지, 최광동지, 림춘추동지, 박성철동지, 전문섭동지, 리을설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허담동지, 연형묵동지, 김중린동지, 허정숙동지, 김국태동지, 김용순동지, 김양건동지, 전병호동지, 박송봉동지, 리찬선동지, 리제강동지, 리용철동지와 강량욱동지, 리종옥동지, 김락희동지, 안달수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충직한 혁명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조명록동지, 김광진동지, 김두남동지, 전재선동지, 윤치호동지, 리동춘동지, 김하규동지, 리진수동지, 심창완동지를 비롯하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귀중한 선군혁명전우들도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또한 리승기선생, 임록재선생, 천세봉선생, 백인준선생, 유원준동지, 리상벽동지, 박영순동지를 비롯하여 과학, 문화예술,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다 바친 원사, 교수, 박사, 작가, 인민배우, 인민체육인들 그리고 한덕수동지, 최덕신선생, 리인모동지, 림헌식동지, 김광택동지를 비롯한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하였으며 그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희생의 대가가 있어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사회주의조국의 오늘의 영광이 있는것입니다.

나는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렬사들, 잊지 못할 우리 당의 혁명전우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것을 제의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소집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년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정세는 매우 엄혹하고 복잡하였습니다.

세계사회주의체계가 붕괴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이 단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봉쇄와 압력,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깡그리 가로막아놓았습니다.

가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들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였으며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력사의 폭풍을 맞받아나가며 오직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당 제7차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5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붉은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며 자랑찬 승리의 년륜을 아로새겨올수 있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당건설로선을 구현하여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실현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건설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전도양양한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70일전투기간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증산,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려 급격한 생산장성을 이룩하고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우리 식의 현대화, 국산화를 위한 투쟁과 생산적앙양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상반년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선물하였으며 전국각지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수많은 중요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당중앙에 충정의 보고서들을 보내여왔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서곡을 울린 국방과학부문에서는 련이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당 제7차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자의 궁지높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영웅조선의 백절불굴의 기개와 담대한 배짱,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뜻깊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 바로 그 모든 성과들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끊임없는 혁명적대고조로 사회주의건설의 전성기를 수놓아온 당원동지들의 고귀한 땀과 불같은 열정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불타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총대와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잡고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를 애국의 더운 피와 땀으로 새겨왔으며 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전체 대표자동지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뜻깊은 우리 당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반제민족민주전선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그리고 남조선인민들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혁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 당 제7차대회에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를 보내준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들,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각계인사들, 주조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당대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로선과 투쟁과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대표자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군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가운데 녀성은 315명입니다.

대회에는 1,387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력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투쟁과 전진, 최후승리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지난 5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각 도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결의권대표자들과 발언권대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도당대표회들에서 추천된 당, 무력,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뢰와 같은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표자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제의에 따라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렬사들, 일군들과 근로자들,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회를 선언하시자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대회는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대표자들과 온 나라의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를 대회집행부에 높이 모시였다.

주석단에는 지난 기간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표들이 자리잡았다.

또한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윤정호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부영욱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단장이 초대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축하문과 축기를 보내여온데 대하여서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에서 당 제7차대회앞으로 축하문과 축기를 보내여온데 대하여 소개되였다.

대회에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들, 각계인사들 그리고 주조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부들이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와 선물, 메달, 명예칭호, 상장들을 드린데 대하여 소개되였다.

또한 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여러 나라의 정당들과 당수들,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각계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를 보내여온데 대하여 소개되였다.

대회는 대회서기부를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드리는 축하문을 부영욱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단장이 랑독하고 축기들을 정중히 증정하였다.

대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는데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근로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대회의정을 승인하였다.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3.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5.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대회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는 대회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총매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라는 투쟁구호를 제시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이 랑독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를 최승호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대회장에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입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300만 조선소년단원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은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삼가 드리였다.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을 랑독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축하단이 대회장에 입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500만 청년전위들의 열렬한 흠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은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삼가 드리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축하단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을 랑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는 추대사를 김영남동지가 하였다.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천재

(13페지로 계속)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5월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펼쳐준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며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력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년대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된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따라 전당과 전군을 주체사상화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였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였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는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슬픔이고 상실이였으며 우리 혁명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였다고 하시였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에 대하여 우려하고 제국주의반동들이 어리석게도 우리의 《로선변화》와 《체제붕괴》에 대하여 떠들던 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단호히 선언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오로지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의 백승의 진로인 선군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방식이 창조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과정에 다져진 정치사상적, 군사적힘이 있었기에 선군의 위력이 높이 발양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속에서도 승리의 신심드높이 조국번영의 앞날을 내다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켰다고 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고 선군정치가 열어놓은 승리의 길을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가 힘차게 전진하고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잃는 민족의 대국상을 또다시 당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잃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장군님의 생전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4차 대표자회를 계기로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들고나가려는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우리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운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결기간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립적민족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여온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은 혁명위업계승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왔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이 결정적역할을 하며 수령의 위업계승문제가 혁명의 운명과 인민의 장래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라는 고귀한 철리를 뚜렷이 확증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과학기술강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오늘 우리가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강국건설, 인민경제발전전략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 바로 사회주의경제강국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단계별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명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고수하며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세우고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치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선군혁명로선을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군사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이고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면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혁명무력, 국방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고 겨레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여온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통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다고 하시였다.

주체적통일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라고 하시였다.

우리는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며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면서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은 자주정치, 선군혁명령도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고립압살책동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가 확대발전되였다고 하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반동세력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사회주의위업을 지지성원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며 자주와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대륙별, 지역별협조를 강화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전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대외정책리념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라고 하시면서 대외활동에서 우리 당의 대외정책리념과 원칙을 일관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진보적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사회주의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위대하고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여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여왔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구현하여 참다운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공고발전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건설의 총적과업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5월

또한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당사업방법에서 낡은 틀을 없애고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면서 멀리 전진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밝혀준 강령적문헌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5페지에서 계속)
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민적풍모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변혁의 새시대를 펼치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본 대회에 정중히 제의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불타는 충정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직책인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대표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대회에서는 다섯째 의정인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를 발표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폐회를 선언하시자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노래가 주악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백두의 대업을 완성해나아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을 이룬 의의깊은 대회합이였다.

글 김태현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였다.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여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전당, 전군, 전민을 충정의 70일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시고 전례없는 기적적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진두지휘하시여 당 제7차대회가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나게 하시였으며 력사적인 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필승불패의 령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온 천만군민은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와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가 5월 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국을 조직하였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당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을 임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폐 회 사

대표자동지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전체 대표자동지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열렬한 축원과 기대속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이제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천만년 드놀지 않을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소집되여 상정된 의정들에 대한 토의를 원만히 진행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폐회선언을 앞두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의 준엄한 력사를 다시금 돌이켜보니 력사의 모진 풍파를 헤치시며 강대한 이 조선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고 평온한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가식과 변심이 없이 령도자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다 먼저 떠나간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들의 이름과 모습들이 선히 떠오릅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하였지만 총결기간 우리 당의 진정한 동지가 되여 간고한 시련의 길을 헤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귀중한 혁명전우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총결기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총화하였습니다.

당 제7차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았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와 혁명적로선과 정책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전당, 전군, 전민을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될것입니다.

대회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시라는것을 당규약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 나갈것입니다.

대회에서는 전당의 의사를 모아 당중앙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였습니다.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당중앙지도기관이 새로 선거된것은 우리 당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나는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나에게 높은 신임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합니다.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는 대회가 제시한 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지닌 력사적사명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당원동지들과 인민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것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입니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을 깊이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견결한 선봉투사가 되며 광범한 대중을 당대회 결정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유능한 조직자, 선전자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방대하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무장력이 무적의 붉은 총창을 비껴들고있기에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가 쟁취할것입니다.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세계 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나는 모든 대표자동지들과 우리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 제7차대회가 내놓은 혁명적로선과 방침들이 철저히 관철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이 이룩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여러 나라 정당들과 당수들,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각계인사들이 보내여온 축하꽃바구니들을 돌아보는 대회참가자들

당대회결정관철에로 천만군민을 총궐기, 총발동시키는 불씨가 될 열의에 충만되여있는 대회참가자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인민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고있는 속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광장상공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만세》노래주악으로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연설하였다.

이어 평양시 수십만 근로자들의 장엄한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모신 당기발대렬이 들어서자 광장은 격정의 대하로 설레이였다.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천만군민의 감격과 환희가 차넘치는 광장에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등의 구호판들을 앞세운 대렬이 파도쳐나갔다.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조선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빛내여가는 조선로동당의 영웅적행로를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면서 시위대오들은《만세!》의 환호성을 련이어 터쳐올리며 광장을 누벼나갔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속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여 성대하게 진행된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와 투쟁강령을 반드시 실현해나갈 천만군민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사진 리광성, 홍광남, 리명국, 진영호, 리성익 글 김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5월

경애하는 [illegible]동지의 령도따라 영원히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며 나아가는 군중시위참가자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중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김일성광장과 그 주변은 조선로동당력사에 특기할 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환희를 안고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격정을 안고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인민의 환희》 등의 노래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대를 이어 수령복, 당복을 누려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이어 광장에서는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이 진행되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노래선률이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기를 정중히 모신 무개차들이 활활 타오르는 혁명의 홰불봉, 주체혁명위업계승의 홰불봉을 추켜든 청년전위들의 옹위를 받으며 광장으로 들어섰다.

위훈의 영웅메달도형과 《청년》, 《500만》 등의 글발들을 젊은 힘 넘쳐나고 더운 피 펄펄 끓는 수천수만의 심장의 홰불들로 수놓아가는 열혈청춘들의 대오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달고야 말 청년맹장들의 억센 기상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손길아래 세상에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듯 창공높이 솟구쳐오른 축포탄들이 눈부신 화광을 뿌리며 불꽃보라가 되여 쏟아져내렸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려는 500만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사진 리광성, 안철룡 글 김선경

백전백승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영원히 우리 당 따라》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애국가의 장중한 음악으로 시작된 공연은 민족자주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계속혁명사상으로 승승장구해온 조선로동당의 영광넘친 행로를 감명깊게 펼쳐보인 관현악과 남성합창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년대들에 천만군민을 로동당의 붉은 피로 높뛰게 한 명곡들을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무대에 펼침으로써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황홀한 음악세계로 펼쳐보인 공연은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끝까지 걸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신념》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김정일상계관작품 관현악과 노래《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막을 내린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리정표따라 당대회과업관철을 위한 총진군 포성을 힘차게 울려가려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광호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3월

당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성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에 떨쳐나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강성국가건설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기적을 이룩함으로써 력사적인 당대회에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드리였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대성공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친 자랑과 긍지를 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충정의 70일전투에 진입한 천만군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로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 창출되였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심장의 호소가 맥동치는 애국의 격문으로 받아안은 수백만 당원들과 천만군민이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며 철야진군으로 수놓아온 70일전투의 나날들은 나라의 국방력강화와 경제강국건설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한 나날들이였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서곡을 울린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소형핵탄두개발과 탄도로케트 전투부첨두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과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당 제7차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자의 긍지높이 활짝 열어놓았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창조와 증산의 뢰성이 힘있게 울림으로써 전국적인 충정의 70일전투계획이 144%로 넘쳐 수행되고 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6배로 장성하였으며 수많은 단위들에서 상반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수많은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생산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선물하였다.

나라의 대건설전투장들에서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새로운 속도를 창출하여 백두산청년대강국의 불패성과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훌륭히 완공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천험의 마식령수림속에 원산군민발전소를 일떠세웠다.

려명거리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린 건설자들은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인민의 만복을 꽃피워가려는 애국의지를 안고 단숨에의 기상으로 건설성과를 확대해나갔으며 각지에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전설을 아름답게 꽃피우며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으로 꿈같이 솟아나고 현대적설비를 갖춘 민들레학습장공장이 새로 건설된것을 비롯하여 중앙계급교양관,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 등 수백개의 대상들이 준공, 조업 및 개건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열정으로 70일전투기간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선철생산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나라에 흔한 무연탄과 철광석으로 선철을 쾅쾅 생산할수 있게 하는 등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연구성과들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탄도로케트 전투부첨두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의 재돌입믿음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인 이 자랑찬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며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나가려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사진 진영호, 홍대웅, 조선중앙통신 글 강수정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나라의 로케트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한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성공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또다시 대성공함으로써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였으며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장갑관통능력과 파괴력이 놀랄만한 휴대용레이자유도반땅크로케트가 개발되였다.

강위력한 신형대구경방사포가 연구개발되여 적대상물들에 대한 정밀공격능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주체105(2016)년 2월 7일 오전 9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였다.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4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여러가지 기계제품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80마력뜨락또르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5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이 완공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체계가 완비되고 중량레루생산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4월

각지에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인 육아원, 애육원들이 건설되였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가 일떠섰다.

경축의 불보라

낸곳 : © 조선화보사 2016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김정철 13606—681123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내 나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naenara. com. 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시위대오 사진 리명국